

6주차 | 학습목차



학습목차

01. '개척단' 조직과 운영

- 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
- 개간, 간척 노동
- 검사와 구타

02. '개척단'의 합동 결혼

- 합동 결혼 추진
-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
- 구술 일화

03. '개척단'의 농지 분배와 이주/정착

- 농지조성 현황
-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
-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

04.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- 서산 개척단의 해산
- 정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
- 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05. 납북귀환 여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

- 납북귀환 여부란?
- 사건의 배경
- 연행
- 강제 심문
-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

06. 납북귀환 여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- 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
- 지역에서의 고립
- 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- 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- 최근의 상황

6주차 |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



4차시

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6주차 | 학습목표

4차시.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개척단은 해산 후 어떻게 되었을 지 추론할 수 있다.
- 현재 개척단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서산 개척단의 해산 과정과 장흥의 농지 분배 이후 떠난 사람들
-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과 사건이 알려진 과정

6주차 | 학습목표

4차시.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서산 개척단의 해산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서산 개척단의 해산

- “그때는 왜 그리 배고프냐고. 개밥을, 간부들이 허연 쌀밥에다가 콩을 섞은 걸 쉬어가지고 (개밥으로) 내놨는데, 어떤 놈이 얼마나 배고팠던지 그 개밥을 퍼먹어버렸어. 그래갖고 기합을 주는거, 그걸 퍼먹었다고. 그 바람에 더 일찍 스트라이크 일어난 거야.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. 애들이 와 일어난거야. “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자.” “느그들 쿠데타냐?”

[출처01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서산 개척단의 해산

- “오늘서부터 우리는 자유여. 어떤 놈이 건들면 죽어.” 간부들이 이제 다 묻혀버리는 거여. 말단 대원들은 다 우리 편이고. 그리고 중대로 다 들어왔어. 이제 그날 일도 안하지.”

[출처01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서산 개척단의 해산

- “철수해라, 오늘부터 절대 근무 서지 마라.” 하고서 하루저녁 자고 나니까 막사가 텅텅 비었어. 구호반이 없으니깐 다 밖으로 가버렸어.”

[출처01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서산 개척단의 해산

- 정부가 직접 운영
- 남은 사람들

[출처01] 국사편찬위원회



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

■ 농지 분배

“우리가 분할 받았을 때에는, 원래는 600평이 아니라 3필지를 받았어요. 1필지가 3마지기입니다. 3마지기는 600평입니다. 그러니 3필지가 1,800평. 그것을 받았어. 그런디 받으면 뭇할 거여?”

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

■ 왜 떠났을까?

“배급 과정은 그 안에 끊어져 버렸죠. 끊어져 버렸은게 뽕뽕이 다 사라져버렸죠. 그리 안 했으면 그렇게 뽕뽕이 다 갈라져 갔겠습니까?
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양반들은 구사일생이라고 살고 계실 거예요.”

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

■ 왜 떠났을까?

“네가 책가방이 너무 잘렀다, 중학교만 나왔더라도 내가 너는 내가 데리고 땡겼다마는.”

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장흥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

- 왜 떠났을까?
 - 강제로 끌려옴
 - 여성 취업 사기
 - 농사가 빨리 되지 않음
 - 1960년대 중반부터 도시화

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“내가 남은 사람들에게 ‘그들 그냥 가면 억울하지 않냐. 농지 분배 이거 해준다니까, 농지분배 받자.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제발 가지 마라.’ 그런데도 소용없어. 다 가고 간부들만 다 남았어.”

[출처01] 국사편찬위원회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
- 박정희 정권기의 인권 침해 사건 대두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한겨레신문 보도

강제로 끌려다 일 시키더니 결혼도 강제로...



[출처03] 한겨레신문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AP통신 보도



[출처04] AP통신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2017년 연극 상영
- 2018년 이조훈 감독 영화 '서산개척단'



[출처05] 극단 작은신화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2018년 청와대, 국회 앞 기자회견
-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- 인간재생공장의 비극



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의 기자회견

[출처06] 비마이너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2018년 3월 22일 서산개척단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자회견
 - 진실규명, 명예회복, 보상 촉구
- 2022년 2기 진실화해위원회 286명 신청자 진실규명

“강제수용과 강제노역은 중대한 인권침해이고, 농지 문제에서도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.”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정착한 사람들과 현재

-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피해
 - 5천 명 이상
 - 15개 이상 사업장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학습정리

- 개척단을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4차시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



다음 차시에서는

- 1960~70년대 인권 침해 사건, 남북 귀환 어부 사건

SOURCES



- [출처01] 국사편찬위원회 - 2012년도 수집 구술자료
한국 근현대 가족경험과 가족의 위치(부분공개) COH009_06_00A0007
- [출처02] 국사편찬위원회 - 2013년도 수집 구술자료
1960년대 정착사업자의 현실과 경험 - 전남 장흥 개척단과 현지인 COH010_07_00A0001
- [출처03] 한겨레신문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778824.html
- [출처04] AP NEWS
<https://apnews.com/article/asia-pacific-ap-top-news-prisons-south-korea-international-news-b4e443bb0ccc4ceaadee5d762929364e>
- [출처05] 극단 작은신
https://www.mcst.go.kr/kor/s_culture/culture/cultureView.jsp?pSeq=23114
- [출처06] 비마이너
<http://www.beminor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005>



기획·조정
이봉규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